

이동훈 교수팀 ‘치매 조기진단’ 생체지표 개발



전남대 이동훈 교수

전남대 이동훈 생물학과 교수 공동연구팀 “AI기술 등 결합”

전남대학교 이동훈 교수팀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바이오 기술을 결합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바이오

마커)를 발견했다.

전남대는 이동훈 생물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치매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환자 등 320명의 혈

액 임상 샘플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분석했다.

결과 5개의 마이크로RNA가 치매 발생 경로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개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에 중요한 잠재적 생체지표로 분석돼 치매 조기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Aging-U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남대 이동훈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태호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김도기 기자

포토 뉴스



농협 순천지부, 순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억 원 전달 순천시 NH농협은행 순천지부에서 순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첫 기부기업

기부금 1억5400만원 전달...사랑의 온도탑 약 3도 올라



기아 AutoLand광주(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1일 지역 사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 및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 참

여했다고 밝혔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지역사회 대표기업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탑 첫 기부기업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김희준 기아 AutoLand 광주 경영지원실장이 기부금 1억

54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광주시의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 금액은 50억7000만원으로 이날 기아의 기부로 광주시의 사랑의 온도탑은 약 3도가 올라갔다.

기부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기아 AutoLand광주는 이날 기부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기부자가 나서 광주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참여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며 “기아 AutoLand광주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담빛예술창고 기획전시 ‘정원사의 진술’...오는 7일



(재)담양군문화재단은 오는 7일부터 담빛예술창고에서 ‘정원사의 진술’ 전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영국국의 시인 마크 헤이머(Marc Hamer)의 ‘두더지 잡기’(2021)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으며, 안정적으로 조성된 정원과 이를 위해 행하는 정원사, 이것을 해치는 두더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김유정, 손몽주, 양정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길 예정이며, 정주하는 삶에 대한 현대인의 단일함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오브제 활용 작품과, 특히 대형 설치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담빛예술창고는 담양 관방제림 끝자락에 위치한 옛 양곡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시와 공연, 차와 도서를 한 자리에 즐길 수 있어 방문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시는 12월 7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단체방문 시 사전예약을 통한 전문 도슨트의 해설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damyang.or.kr>)를 확인하거나 예술진흥팀(070-7701-69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마동 ‘양와당’ 대표 성금 쾌척 광양시 중마동은 ‘양와당’ 조민경 대표가 취약계층에게 써 달라며 성금 120만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봉화라이온스클럽, 매곡동에 겨울나기 후원 물품 전달 순천시 매곡동은 순천봉화라이온스클럽에서 겨울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매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장 김치 15박스, 라면 16박스, 쌀 20kg 10포(18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교육리더들과 함께 ‘광양교육, 미래를 그리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이틀간 유·초·중·고(원)감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날 28일부터 29일까지 세계시민역량 함양과 문화융합 체험연수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 확대와 학교 현장의 생태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원)감의 지구생태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6·25참전용사 故 천병을 선생, 72년 만에 금성화랑 무공훈장

김한중 장성군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최선 다해 예우”



장성군이 지난 1일 6·25 참전용사인 고(故) 천병을 선생의 조카인 천남신 씨에게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1931년에 태어나 1952년 21세 나이로 입대한 천병을 선생은 같은 해 12월 24일에 전사했다.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72년 만인 이날 훈장을 받게 됐다.

장성군은 올해 초부터 국방부 협업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무공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군은 앞선 6월 25일 열린 6·25전쟁 73주년 기념식에서 고(故) 박경태 선생의 자녀 박현숙 전남도원의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8월 1일에는 고(故) 나봉균 선생의 자녀 나중주 씨에게 무공훈장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전남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코로나 선제적 위기대응 등 인정



전남도가 정부의 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부분 등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24.3%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선제적 방역으로 조사방물

(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전국에서 4번째로 낮게 유지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남도의 앞서가는 방역시스템 개선안 제안 노력도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매일 실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재택치료 방안 개선, 병상관리체계 개선,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 현장의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을 이끌었다.

/김효 기자

광주SW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참가

자체 개발 분리수거 안내 앱 등 혁신적 AI 서비스 선보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광주소마고) 학생들이 11월 29일~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2023’에서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2023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SW 전시회다.

이곳에서 320여 개 기업이 560개 부스를 꾸려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광주소마고 학생들은 부스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ITP)의 지

원을 받아 자체 개발한 친환경 앱 ‘미소’와 입학 지원 서비스 ‘Hello GSM’을 소개했다.

‘미소’는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을 촬영하면 AI가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해주는 앱으로, 배달 증가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소마고 ‘더모먼트’ 동아리 학생들이 개발한 ‘Hello GSM’은 광주소마고의 입학 지원 및 면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광주소마고의 신입생 지원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조순주 기자

다문화 ‘무지개’ 문화예술 동아리 종강콘서트

순천교육청, 현악·합창 동아리 종강에 따른 콘서트 운영



순천교육지원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2개팀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한 결과에 따른 다문화 ‘무지개’ 현악·합창 동아리 종강 콘서트를 순천발명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강콘서트는 현악동아리 12명, 합창동아리 16명이 공연을 펼쳤고 학부모님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동현악연주를 시작으로 중동현악연주, 합창 순서로 공연

이 진행됐으며 중간에 참여 강사들의 축하공연 후 합창과 현악이 함께하며 콘서트가 마무리 됐다.

현악동아리는 순천발명교육센터 전용연습실에서, 합창동아리는 순천남산초에서 운영됐다. 2023년에는 5월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 1회씩 연습을 실시했고 순천관내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했다.

/순천=조준익 기자